

2017/18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세계 인권 현황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150개국 700만 명 이상의 지지자, 회원, 활동가로 구성되어 중대한 인권침해를 종식하기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운동 조직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 국제앰네스티
발행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8층
대표전화 02-730-4755
Copyright Amnesty
International 2018
Index: POL
10/6700/2018
Original language:
영어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본 문서의 내용은 크리에
이티브커먼스(저작자표시
4.0 국제)라이선스로 허
용됩니다. [https://
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nd/
4.0/legalcode](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legalcode)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
스티 웹사이트에서 확인
하세요: amnesty.or.kr

2017/18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세계 인권 현황



2017/18 연례인권보고서 목차

서문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14

대한민국(남한) 16

2017/18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서문



서문

“세계인권선언 채택 70년에 접어드는 지금, 너무도 분명한 것은 우리 누구도 인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점이다.”

살릴 세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2017년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악마화 정치의 쓰라린 결과를 경험해야 했던 한 해였다. 최악의 결과는 미얀마에서 로힝야 사람들을 상대로 벌어진 끔찍했던 인종청소 군사작전에서 드러났다. 약 62만 명이 몇 주 만에 인접국인 방글라데시로 향하는 피란길에 올랐고, 이는 2017년 중 가장 급속히 확대된 난민 위기였다.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에도 이들의 미래는 불투명했으며, 세계 지도자들이 난민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는 세계가 대규모 잔학 범죄의 온상을 만드는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또 하나의 처참한 실패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미얀마에서 위기 징후가 드러난 지는 오래됐다. ‘아파트헤이트(Apartheid)’와 닮음없는 체제하에서 대대적인 차별과 격리가 일상화되었으며, 로힝야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조건조차 박탈당한 채 일상적으로 악마 취급을 받았다. 차별과 악마화가 대규모 폭력사태로 이어지는 장면은 비참할 만큼 익숙한 풍경이며, 그 파국적인 결과는 쉽사리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로힝야 사람들이 겪은 끔찍한 불의는 2017년에 와서야 두드러지게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정체성을 근거로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경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지난해는 악마화의 정치가 주류로 자리 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그것이 인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던 해였다.

2018년을 맞아 세계인권선언 채택 70년에 접어드는 지금, 너무도 분명한 것은 우리 누구도 인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미래에 함께 모여 시위에 참여하거나 정부를 비판할 자유를 당연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이 들었을 때나 건강을 잃었을 때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누리고,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에서 자라며, 젊은이들이 졸업 후 집을 살 수 있는 경제력을 보장해줄 직장을 구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곳에서도, 어떤 시대에도 인권의 투쟁에 있어서 완전한 승리는 없었다. 인권의 최전선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에 결코 한 자리에 안주할 수 없다. 인권의 역사에서 지금보다 그 점이 더 명확히 드러난 때는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난관을 마주하고도, 사람들은 정의·존엄·평등에 대한 열망을 꺼트리지 않을 것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때때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끊임없이 그 같은 열망을 드러낼 새롭고 대담한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다. 2017년, 세계를 뒤흔들었던 가치 전쟁은 그 치열함에 있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인권의 근간이 되는 기본 가치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인정-에 대한 공격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국제 무기 거래가 부채질하고 있는 분쟁에서 막대한 규모의 민간인 피해(많은 경우 의도적인)가 발생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봉쇄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예멘의 인도주의

적 참사에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슬람 국가(ISIS)라 자칭하는 무장단체가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삼고 또 그 민간인을 정부군과 연합군이 무차별 살상하는 상황에서도, 국제법상의 범죄행위로 인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남수단에서도, 세계의 많은 분쟁의 당사자들은 때때로 민간인 보호 의무를 존중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부유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난민을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닌 피해자 할 골칫거리로 여기면서,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회피와 노골적인 냉대로 일관했다. 인구 다수가 이슬람 신도인 몇몇 국가 국적자의 입국을 모두 금지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는 명백히 혐오에 기반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유럽 정상들은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의 이민 규제라는 문제해결 방식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유럽 해안으로 유입되는 난민을 차단하는 일에는 사실상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는 리비아 난민이 겪었던 충격적인 인권침해에서 자명하게 드러났으며, 이는 유럽 정상들의 부작위 아래에 벌어진 일이었다.

유럽과 아프리카 각지에서 잇따라 열린 주요 선거에서는 혐오와 공포의 망령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일부 후보자들은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이주민·난민·소수 종교집단에 대한 공포심과 비난으로 바꿔 놓으려 했다.

그럼에도 2017년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자신이 세상에서 보기 원하는 가치를 위해 투쟁하려는 지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었던 해이기도 했다. 새롭고도 엄중한 위협이 오히려 저항 정신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일으켰다. 폴란드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자 수많은 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11월 짐바브웨에서는 수만 명이 결의에 찬 행진을 벌이며 수십 년간 이어왔던 반독재 투쟁을 그 정

점에 올랐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진정한 선거가 2018년 내에 개최되기를 요구했다. 인도에서는 이슬람 혐오 확산과 이슬람 신도 및 달리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해진 잇따른 린치 행위가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해 “우리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구호를 내건 시위가 열렸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세계여성의 날’ 행진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 중 하나로 기록됐다. 전 세계적으로는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끔찍하리만치 광범위하게 자행되어 온 성폭력 문제가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일에 따른 대가도 컸다. 터키에서는 2016년의 쿠데타 실패 이후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자행돼 온 잔혹하고 자의적인 공격이 맹렬한 기세로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 터키 지부 이사장과 사무처장 등 수천 명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정부에 비판적이라고 여겨지는 개인·단체에 대한 전례 없는 탄압을 자행했다. 러시아에서는 광범위한 대규모 시위가 열린 이후 평화적 시위대·행인·언론인 수백 명이 체포됐고, 이 중 많은 이들이 부당대우를 받고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불공정재판에서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졌다.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는 대중 시위에 대한 불관용적 태도가 우려스러운 정도로 명확히 드러났다. 앙골라와 차드에서는 자의적으로 시위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콩고민주공화국, 시에라리온, 토고, 우간다에서는 가혹한 탄압이 자행됐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고조되는 인플레이션과 식량과 의료물자 부족에 항의하는 대중 시위에서 수백 명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더 많은 이들이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이집트는 비정부기구 폐쇄나 자산 동결 조치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했으며, 정부 허가 없이 연구결과를 발표할

경우 징역 5년을 부과하는 가혹한 법률을 제정하고, 언론인과 정적 수백 명을 징역형에 처했다. 2017년이 끝나갈 무렵, 이란에서는 2009년 이후 볼 수 없었던 반정부 시위의 물결이 시작됐고, 경찰이 총기 및 기타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해 비무장 시위대를 살해하고 부상을 입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체포되어 고문과 부당대우로 악명 높은 감옥에 구금됐다.

2018년은 인권옹호자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하면서 모든 사람의 인권 옹호 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인권옹호자선언'이 유엔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인권옹호자들은 종종 인권옹호활동을 이유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2017년, 노벨상 수상자인 류샤오보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은 수많은 국가의 정부가 인권옹호자에게 드러내는 경멸적 태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중국 당국에 의해 거부된 후 류샤오보는 7월 13일에 구금 상태에서 간암으로 사망했다.

국가안보 및 대테러 담론은 여전히 국가 권력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재정의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사용됐다. 국가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폭력 행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분명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러한 일들이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권리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유럽은 계속해서 반영구적 안보화 상태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비상 체제하의 규정을 일반법에 포함한 새로운 반테러법이 채택된 11월이 돼서야 비상사태가 해제됐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심각한 공격에도, 인간 존엄성과 평등의 가치를 위한 전 세계적 투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억압적인 정부 대(對) 신념을 가진 민간의 힘'이라는 단순한 등식을 거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의 대중적 공간은 양극단의 각축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폴란드와 미국에서는 인권 보호가 후퇴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한편, 바르샤바에서는 파시스트들이 대규모 행진에 나서고, 살러츠빌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극도로 반인권적인 정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던 일도 있었다. 많은 나라에서 특정 집단의 인권을 부정하는 인권 침해적 정책과 관행이 대중적 지지를 얻기도 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대중적 공간의 상당수가 온라인상에 존재하며, 이 공간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종종 드러나고 있다. 쏟아지는 온라인상에서의 인권침해,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와 소수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에 대한 소셜미디어 기업의 대응은 유약하고 일관성 없는 조치에 그쳤으며, 정부의 조치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여론조작의 수단으로서 '가짜뉴스'가 가져온 영향은 2017년 내내 폭넓게 논의된 주제였다.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기술적 가능성은 앞으로 더 발전할 수밖에 없어 보이며, 이는 사람들의 정보 접근권에 대한 의미심장한 질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접하는 정보에 대한 통제가 소수 기업에만 극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 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제하는 기업 및 정부와 개인 간에 엄청난 권력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성을 띠게 된다. 사실상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증오와 폭력을 선동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이런 것들로 인한 여론 형성 능력은 엄청난 것이다.

2018년 12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는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분명하다. 이제 만인을 위한 평등과 존엄이라는 본질적 개념을 회복하고, 그 같은 가치를 소중히 여겨, 이를 정책 입안과 실천의 기초로 삼도록 해야 한다. 악마화의 정치가 만들어 낸 가상의

장벽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갈등과 야만, 원초적 이기심에 지배돼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인류의 끔찍한 미래일 뿐이다. 너무도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중상모략가들의 손에 우리 사회의 의제 설정 기능을 넘겨주었으며,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변화의 시기가 도래했다. 악마화의 담론을 거부하고 연대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타인에 대한 관용의 능력도 키워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속한 사회의 건설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타인을 비난하는 정치적 담론이 싹트게 하는 좌절, 분노, 소외에 맞서 인권에 기반한 건설적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 인지를 묻는 우리에게 2018년은 인권의 변혁적 개념에 새로이 헌신할 중요한 기회를 안겨줄 것이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2017/18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국가별 인권 현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원수: 김정은

내각 총리: 박봉주

북한 정부가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참여하려는 긍정적 움직임을 보이긴 했으나, 현지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다. 최대 12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정치범수용소에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으며, 이들의 수용환경은 국제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배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2017년 내내 수차례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이 같은 군사도발은 북한에 대한 전례 없는 유엔의 강력한 제재로 이어졌다. 북미 간 군사적, 정치적 위협이 오가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됐다. 핵실험장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인근에 거주했던 주민에게서 방사선 피폭 징후가 포착됐다는 보도 이후, 핵실험의 안전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화학 작용제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두 명의 여성에 의해 살해된 사건은 북한 첩보원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자의적 체포와 구금

알려진 정치범수용소 4곳에 12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수감돼 강제노동과 고문 및

부당대우를 당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중대 인권침해가 계속됐다. 이 같은 인권침해 중 일부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지만, 2017년에 책임 추구를 위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알려진 바는 없다.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인 이들 중 다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형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이들은 국가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거나 '연좌제'의 적용을 받아 자의적으로 수감됐다.

외국 국적자가 장기간 체포 및 구금되는 일도 계속됐다. 각각 4월 22일과 5월 6일, 미국 국적자이자 해외투자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 학자인 토니 김과 김학송이 '반공화국 적대행위'로 체포됐다. 6월, 이들에 대한 미 외교관의 접견이 허용되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의 범죄혐의를 수사 중이며 법원 판결 및 선고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말에도 여전히 구금되어 있었다.

2016년에 선전 포스터를 훔친 혐의로 수감됐던 미국 국적자 오토 웬비어가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지 엿새만인 6월 19일에 사망했다. 북한 당국은 그의 건강상태가 왜 악화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오토 웬비어의 출신 주인 오하이오주 검시관이 9월 27일 공개한 보고서에는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언급하였으나, 그 같은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2015년 무기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던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가 2년 이상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금됐다가, 8월 9일 '인도주의적 사유'로 석방됐다.¹

노동자 권리 - 이주노동자

중국, 러시아 등지로의 북한 당국의 해외 노동자 파견이 계속됐다. 파견 노동자 수는 추산이 어려웠으며, 중국, 쿠웨이트, 폴란드, 카타르, 스리랑카 등이 북한의 해외 경제

활동에 대한 새로운 유엔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 사람에 대한 노동 비자 추가 발급 및 갱신을 중단함에 따라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국가재정 일부를 파견 노동자의 임금에서 충당했으며, 파견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서 직접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북한 정부로부터 상당액이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았다. 북한 당국은 노동자의 통신 및 이동을 엄격히 통제했으며 파견 노동자들이 유입국에서 노동권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유입국 잔류 노동자들은 과다 노동시간에 시달렸으며, 산업안전보건상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북한 파견 노동자 규모가 최소 2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한 사례들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5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건설 노동자 2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한 후에 사망했으며 사인은 급성심부전으로 알려졌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 하청업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수 노동자가 휴일 없이 몇 달간 끊임없이 장시간 일한 탓에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에서는 2016년 11월경 소속 노동자 한 명이 심부전으로 사망한 적이 있다.

이동의 자유

한 해 동안 북한 주민 1,127명이 북한을 떠나 한국에 재정착했다. 이는 2002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였다. 북중 접경지대 경비강화가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북한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업자와의 거래를 통해 북한을 탈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국경을 넘어 중국에 도착한 후에야 자신들이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하거나 착취에 해당하는 노동환경에 처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2017년, 상당 규모의 북한 주민이 중국에 구금되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 강제 노동에 처하거나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를

받을 위험에 놓여졌다.² 북한 정부가 사전허가 없이 북한을 떠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송환할 것을 중국에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다수 출처에 따르면 북한을 떠났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한국에 도착한 후 북한으로의 귀국 의사를 표명하는 이들의 사례가 보고됐다. 북한으로 돌아간 이들 중 일부는 국영 매체에 등장해 북한 외부에서 겪었던 고난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재입북 과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출현은 이들의 입북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납북된 것인지 여부와 혹 이들이 북한 당국의 설득으로 날조된 증언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추측과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

북한 정부는 여전히 북한 사람들과 북한 외부세계와의 정보교환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전기통신·우편·방송 서비스 일체는 국영체제이며, 독립적인 신문·기타 매체·시민사회단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엘리트 지배층 중 선택받은 소수를 제외한 사람들은 인터넷 및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다.

중국접경지대 주민들은 체포와 구금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밀수 휴대폰으로 중국통신망에 접속해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접경지대에 새로운 레이더 탐지기를 설치해 중국통신망을 이용한 휴대폰 사용 추적 및 신호 교란 활동을 강화했다.

국제적 감시

2016년 북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5월 3~8일 동안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공식 방문했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독립 전문가의 최초 북한 방문이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7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북한은 해당 위원회에 각각 14년, 9년 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회기 중 질문에 답변하기도 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심사와과정에서 북한 아동이 타국에 거주하는 부모 및 가족구성원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³ 또 동 위원회는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상 16세와 17세 아동이 적용 배제된 점과 일부 아동이 장시간 고된 노동을 요구받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
1. 북한: 2년 이상 수감됐던 임현수 목사 석방돼 (국제앰네스티 문서번호: ASA 24/6921/2017)
 2. 중국: 북한 주민 8명 강제송환 위기에 처해 (국제앰네스티 문서번호: ASA 17/6652/2017)
 3. 북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출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국제앰네스티 문서번호: ASA 24/6500/2017)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문재인(5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교체,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에서 교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부정부패 스캔들에 대한 반응으로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정부 교체 이후 경찰청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 존중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집회 관리 접근법의 개선을 주문하는 포괄적 개혁 권고안을 수용했으나, 연말 기준 권고안의 완전한 이행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는 하급심 재판부의 수가 날이 늘고 있다. 공공 생활 영역, 특히 군에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TI)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상황이 계속됐다. 국가 보안법의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한 자의적 구금이 이어졌다. 이주노동자의 잇따른 사망 사건으로 사업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배경

헌법재판소가 3월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5월에 인권변호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였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¹

집회의 자유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014~2015년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개최됐던 일련의 반정부 시위에서 발생한 경찰과 시위자 간의 산발적 폭력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됐다. 5월, 대법원은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한 위원장의 기소가 평화적 집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의 구금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형에 대한 한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엔 실무그룹은 한 위원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6월, 이철성 경찰청장이 정부의 농업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부상한 후 2016년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사과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뒤늦게 이뤄진 데다 경찰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도 않은 경찰의 사과를 비판했다.

9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경찰청이 신설된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

안을 수용했다.² 권고안에는 평화적 집회의 추정, 돌발 집회 및 기타 긴급 평화 집회의 보호 등 기존 집회 관리의 전반적 접근법의 변화를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으나, 특정 장소 및 시간에 열리는 옥외 집회에 포괄 금지 규정이 폐지되지 않는 등 다른 측면에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 채택된 권고안이 국제인권법기준에 부합되도록 이를 법률로 공고할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헌법재판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위헌 소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가운데, 하급심 재판부가 양심상의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 연말 기준, 한 해 동안 최소 44건의 하급심 무죄판결이 있었다.

5월과 12월, 서울행정법원이 병역기피자 명단을 공개한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된 각 소송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이름, 나이, 주소 등 신상정보 공개 중단을 명령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결정에서 신상공개로 인해 병역거부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체복무제 도입 요구가 증대되었다. 5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2건이 추가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6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또다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권리

남성 동성애자들이 폭력, 괴롭힘, 언어폭력 등으로 의무 군복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5월, 남성 동성애자 군인이 동성 간 합의하에 이뤄지는 군인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6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십수 명이 동 조항 위반으로 기소됐다.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군이 동성애자로 추정되는 이들을 식별하기 위해 표적으로 삼은 남성에게 압력을 가했다면서 그 결과물인 데이팅앱 대화창 스크린샷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군 수사관들이 남성 동성애자로 추정되는 이들 50명가량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이들에게 연락처 및 게이 데이팅앱에 있는 다른 동성애자를 식별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9월, 국회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김이수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김이수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며, 김 재판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일부 종교단체가 활발한 반대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노동자 권리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비정기적 임금 지급, 위험한 작업환경에서의 노동 등 착취에 취약한 상황이 계속됐다.

5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2명이 경상북도의 한 돼지농장에서 정화조 청소 도중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2주 뒤에 경기도의 다른 돼지농장에서 중국, 태국 출신의 이주노동자 2명이 돼지 분뇨를 치우다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월, 충청북도에서 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공장 기숙사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이주노동자는 고용주가 극심한 불면증 치료를 위한 네팔 귀국이나 사업장 변경을 허락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규정에 근거한 자의적 구금도 계속됐다.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온라인 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받고 재판을 받았다. 7월,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이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표현의 자유

4월, 서울행정법원이 인터넷 콘텐츠 검열 업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북한의 정보통신 발전 상황을 다루는 웹사이트인 <노스코리아테크>의 접속을 차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방심위는 이 웹사이트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은 과거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이들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기업 책무성

법원이 다국적기업의 전·현직 직원의 업무와 연관된 사망이나 질병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8월, 대법원은 삼성전자 관련 소송에서 공장 전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기업의 정보제공 거부와 당국의 불충분한 역학조사로 인한 증거 부족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1.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자에게 보내는 8대 인권 의제 (국제앰네스티 문서번호: ASA 25/5785/2017)
 2. 임무실패: 한국에서의 경찰의 집회대응 (국제앰네스티 문서번호: ASA 25/7119/2017)

2017/18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세계 인권 현황

2017/18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는 전 세계 159개국의 2017년 인권현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의 우려와 행동추구를 대변한다. 정책결정자, 활동가 그리고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문서이다.

2017년에는 분쟁·긴축 재정·자연재해가 많은 이들을 더한 빈곤과 불안 속으로 몰아 넣었으며, 수백만이 자신의 집을 떠나 자국 내에서 혹은 국경을 넘어 난민이 되어야 했다. 차별은 세계 전 지역에서 만연했으며, 때로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왔다. 어떤 정부 체제를 막론하고 언론인, 인권옹호자,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포함해 표현·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권리 탄압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모든 지역에서 불의에 맞서 일어서고 각자의 권리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는 수백만이 있어, 줄곧 사람들의 용기와 결의가 빛났다. 이러한 개개인은 과거 벌어진 범죄에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했고, 정부당국에 그들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상기 시켰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레즈비언, 게이, 바 이섹슈얼,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Intersex, 간성) 등 성소수자와 같은 분야에서의 진전은 우리가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을 때 어떤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여 주기도 했다.

amnesty.or.kr

AMNESTY
INTERNATIONAL

